■민족문화연구 제96호(2022.8.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257-290.
http://doi.org/10.17948/kcs.2022..96.257

『靑城雜記』의 여성 형상과 여성 담론

장진엽(張眞燁)*

목 차

1. 머리말
2. 『청성잡기』의 여성 형상: 윤리의 수행 주체로서의 여성
3. 『청성잡기』의 여성 담론: 婦德의 딜레마
4.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성대중의 『靑城雜記』《醒言》에 나타나는 여성 형상과 여성 담론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청성잡기』의 여성 형상을 세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세 유형의 여성 형상은 모두 윤리의 수행 주체로서의 여성의 모습을 부각한 것이다. 첫째는 烈女의 형상이다. 시집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은 남편을 따라 자결한 여성들과 정절의 위협에 저항하다 죽음에 이른 여종 有分은 선험적인 윤리의 내면화를 바탕으로 결연히 이를 실천한 인물들이다. 저자는 또한 여성의 덕을 모두 烈로 귀속시키지 않고 그 행위의 성격에 따라 '賢' 또는 '義烈'과 같이 세분해서 파악하기도 했다. 둘째는 義俠의 형상으로,

* 성신여대 한문교육과 조교수.

유배 간 남성을 봉양한 기생 翠嶺과 福德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을 信義 있는 인물, 즉 의협으로 묘사한 것은 새로운 시대의 도덕의 수행자로서의 여성 형상을 창출한 것으로서, 젠더화된 도덕의 위계를 넘어서는 태도이다. 그러나 인물의 감정과 욕망을 배제하는 서술 태도는 이념에 투철한 '전형적인 형상'을 만들어내는 열녀전의 글쓰기와 닮아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셋째는 忠節의 형상이다. 金氏와 徐氏는 남성과의 연계 없이 독자적으로 공적 영역의 가치를 실현한 여성들로서 그 능동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행위는 이들과 연관된 남성 및 집단의 가치를 현양한다는 맥락에서만 그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어서 『청성잡기』의 여성 담론을 검토하였다. 저자는 여성의 덕과 성품의 관계, 즉 '婦德의 딜레마'에 대해 논하였다. 맹렬한 孝烈은 '順'을 정도로 하는 부덕과 어긋날 수 있으며, 특출한 행동을 한 여성들은 성질이 사납다고 하였다. 또, 조선에서는 개가를 금하기 때문에 부인들의 기세가 더 강해졌다고 하였다. 다른 방도가 없기에 남편에게 화가 날 때마다 죽으려 든다는 것이다. 성대중은 여성들의 이러한 '사나움'을 다스리기 위해 남성들이 행동을 삼가서 집안 여성을 훈도해야 한다고 하였다. 비록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으나, 여성의 일방적인 순종이나 인내를 강요하지 않고 남성 측의 노력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가 있다. 또한 당연한 것으로 전제되었던 여성 윤리의 작동 방식에 현실적인 '모순'이 있음을 파악하고 이를 진지하게 고민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주제어: 靑城雜記, 成大中, 여성 형상, 여성 담론, 婦德.

1. 머리말

『靑城雜記』는 조선 후기 서얼 지식인 成大中(1732-1809)의 필기류 저작이다. 『청성잡기』는 《揣言》, 《質言》, 《醒言》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1] 권질은 모두 3책이다. 《췌언》은 '헤아려 쓴 말'이라는 뜻으로 중국 역사에 관한 11편의 論을 수록하고 있다. 《질언》은 일종의 격언으로서, 모두 142항목이 나열되어 있다. 간혹 긴 글도 있지만 대체로 20자 안팎의 짧은 글들이다. 《성언》은 '깨우쳐 주는 말'이라는 뜻으로서 인물에 관한 일화와 논평, 풍속·제도와 문물,

1) 명대 문인 馮夢龍의 『三言』의 체제를 본뜬 것이다. (손혜리, 「『靑城雜記』에 대한 일고찰—「醒言」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24, 동방한문학회, 2003, 142면) 『삼언』은 《喩世明言》·《警世通言》·《醒世恒言》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견해, 민간 설화와 교훈적인 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모두 411항목이다. 이 책은 18세기 문화와 생활의 여러 모습들 및 당대 지식인의 사유의 경향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자료이다.[2)]

기존 연구에서 『청성잡기』의 한 특징으로 사건 중심 서술보다 인물 중심 서술이 우위를 차지하며, 양반, 평민, 기생, 거지, 관노 등 여러 계층의 인물들이 서술 대상이 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3)] 이에 더하여 『청성잡기』에 여성 인물에 대한 기록이 풍부하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성언》에는 여성 인물의 행적을 소개한 항목이 12건으로, 모두 15명의 여성 인물을 다루고 있다. 이 기사들 중에는 小傳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만큼 완성도를 갖춘 것들도 있다. 그 외에도 여성과 관련된 언급을 포함한 기사도 10여 건 정도 확인된다. 『청성잡기』는 일견 잡다한 이야기들을 망라한 저술처럼 보이지만, 서술 태도나 인물 기술 방식에서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갖고 있으며 특정한 사고방식이 관찰되기도 한다.[4)] 여성과 관련된 기사들에서도 일정한 형상화 방식 및 저자의 특징적인 의식 지향을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청성잡기』에 수록된 여성 관련 기사는 기생을 다룬 논고들[5)]에서 일부 인용된 적은 있지만, 그 전반적인 양상을 살펴본 연구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에 본고는 『청성잡기』 《성언》에 나타나는 여성 형상의 특징, 그리고 『청성잡기』에서 확인되는 특징적인 여성 담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이 책에 담긴 사고가 당대의 여성 인식 및 여성 담론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확인하는 작업이며, 동시에 18세기 후반 지식인들의 여성 담론의 한 부분을 재구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

2) 박소동, 「청성잡기 해제」, 한국고전종합DB, 2006 참조.

3) 손혜리, 앞의 글, 156면. 김준형, 「『청성잡기(靑城雜記)』를 통해 본 거지와 거지 이야기」, 『민족문학사연구』 40, 민족문학사연구소, 2009; 김경회, 「『청성잡기(靑城雜記)』의 협객(俠客) 형상에 나타난 성대중(成大中)의 서술 의식 연구」, 『한국민족문화』 72,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9 역시 이와 같은 『청성잡기』의 성격에 주목한 논의이다.

4) 인과응보에 대한 믿음, 대명의리와 충절에 대한 강조, 소박한 풍속의 지향, 기층민에 대한 관심 등이 그러한 예이다. 박소동, 앞의 글 및 손혜리, 앞의 글 참조.

5) 조혜란, 「〈협창기문(俠娼奇聞)〉에 나타난 죽음의 성격」, 『한국고전연구』 20,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정우봉, 「조선 후기 俠妓의 유형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38, 2010.

2. 『청성잡기』의 여성 형상 : 윤리의 수행 주체로서의 여성

『청성잡기』《성언》에서 여성 인물의 행적을 서술하고 있는 기사는 12건으로 확인된다. 두세 명의 인물을 하나로 묶은 것이 있으므로 서술 대상은 모두 15명이다. 〈표 1〉은 이 기사들에서 전하고 있는 여성 인물의 이름과 신분 및 그 행적을 정리한 것이다. 관련 인물의 생몰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병기하였다.

〈표 1〉『청성잡기』《성언》 수록 여성 인물 관련 기사

	권수	여성 인물	행적
1	권3	梅環 [林慶業(1594-1646)의 妾 / 賤人]	임경업이 죽은 후 효종에게 북벌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직간함.
2		翠蟾 [咸陽 妓 / 賤人]	수령으로 자신을 총애했던 沈鑰이 유배를 가자 따라가서 봉양함.
		福德 [鏡城 妓 / 賤人]	柳東垣이 수령이었을 때 모셨는데 그가 귀양을 가자 자신의 남편과 자식을 두고 유배지에 가서 죽을 때까지 유동원을 돌보고 고향으로 시신을 옮겨와 초상을 치른 후에 돌아감.
3		金氏 [趙維鎭(1721-1762)의 母 / 士族]	조유진이 숙부인 조재호의 무죄를 항변하다 모진 형벌을 받고 죽음. 조유진의 어머니 김씨가 집안이 망했는데 부녀자 하나 죽지 않는 것은 사족의 수치라고 하며 굶어 죽음.
4		雲心 [密陽 妓 / 賤人]	검무로 일세에 이름을 떨침. 윤순의 초서를 얻었으나 풍원군에게 빼앗겨 한스러워함. 약산 동대에 올랐을 때 자신은 천하의 명기이니 천하의 명승지에서 죽겠다고 하여 뛰어내리려다 살아남.
5	권4	徐氏 [左懋第(1601-1645)의 母 / 士族] *중국	좌무제(明末의 관리)의 어머니는 경사가 함락되었을 때 피난을 가다가 조카에게 '자신은 부인이지만 나라의 은혜를 받았으니 살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하고 아들에게 힘쓰라는 말을 전해 달라고 하며 함께 가던 두 대신에게도 죽기를 권한 후에 숨이 끊어짐.
6		邊氏 [邊若淳(?-?)의 妹 / 士族]	변씨는 시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남편이 물에 빠져 죽음. 줄곧 자결하려 했는데 가족들이 막아서 못함. 시간이 지나 방비가 허술해지자 밤에 몰래 나가 물에 빠져 죽음. 시신을 꺼내니 온몸이 새끼줄로 칭칭 감겨 있었음.

	권수	여성 인물	행적
7	권4	金氏 [吳允常(1746-1783)의 妻 / 士族]	친정아버지의 상복을 벗은 후에 남편과 동침하는 것은 예에 어긋나는 것이 아님. 김씨가 상복을 벗은 날 오윤상이 동침하려고 하였는데, 김씨가 이를 거절함. 오윤상이 평생 부끄러워하며 친한 이에게 이 이야기를 해줌. 부인뿐 아니라 오윤상도 현명함. 그러나 끝내 자식 없이 죽었고 김씨도 따라 죽으니 조정에서 정문을 세워 줌.
8		村家女 / 永平 蔡氏女 / 善山 香娘 [良人]	李宜晩(1650~1736)이 충주에 있을 때 호랑이에게 물려간 어머니를 구한 소녀가 있었는데, 온 고을이 그의 烈孝를 칭찬하였음. 이의만이 어떤 사람에게 이 소녀를 소개하여 시집 보냈는데, 알고 보니 성질이 사나워서 이의만이 불효로 치죄함. 영평의 채씨 여자도 호랑이에게서 어머니를 구하여 정문이 세워졌는데 시집 가보니 덕이 없고 성격만 드셌음. 선산의 향낭도 성질이 편벽되어 아내 노릇하기 어려운 여자라고 함.
9		有分 [坡州 婢 / 賤人]	유분은 남의 집 종이었는데 어릴 적 정문 아래서 쉬다가 조모에게 열녀가 무엇인지를 들었음. 시집간 후에 친정에 갔을 때 밭에서 젊은 남자가 겁탈하려고 하여 저항하다 배를 찔림. 어머니가 울면서 죽음이 두렵지 않았냐고 탓하니 화를 내며 자신이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겠느냐고 말하고 죽음. 조정에서 정문을 세워 줌.
10		南原 黃曲壽의 妻 [良人]	황곡수의 아내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서울에 복무하러 갔다가 죽었다는 기별을 받음. 남복을 하고 상경하여 남편의 시신을 가져와서 빈소를 차리고, 그날 밤 빈소에서 시신을 껴안고 죽음. 두 사람의 배가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음.
11	권5	梁氏 [李廷煥(?-?)의 妻 / 士族]	남편이 종성으로 유배 가자 밀양에서 종성까지 찾아가서 함께 살다가, 남편이 죽자 유해를 짊어지고 밀양으로 돌아옴. 연로의 관아와 고을 사람들이 감동하여 양씨를 많이 도와줌.
12		坡女 [白尙九(?-?) 妾 / 未詳]	李觀誠이 〈坡女傳〉을 지음. 파녀는 온갖 여공에 능하였고 시에는 唐調가 있어 여자의 작품 같지 않았음. 글씨, 그림, 바둑, 활쏘기, 노래와 춤에도 능하며 특히 검무에 뛰어남. (이별시 한 수 인용) 출신을 알 수 없으나 아마도 환난을 피해 숨은 자인 듯. 울분을 안고 자식 없이 죽음. 기러기를 읊은 시의 한 구 또한 讖語임.

위 15명 인물 가운데 좌무제의 어머니 서씨는 중국인이며, 나머지는 모두 조선인이다.[6] 주로 영・정조대의 인물들인데, 명청 교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6) 어째서 중국인 여성이 기록 대상으로 편입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좌무제 어머니의 일은 좌무제의 효성과 충절을 제재로 한 기사의 일부로서, 여성 인물의 전은 아니다. 『청성잡기』에

임경업의 첩과 좌무제의 어머니는 이보다 앞선 17세기 인물이다. 이 여성들의 활동 시기는 언급된 남성 인물들의 생몰년을 통해 저자의 당대 또는 오래지 않은 시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입전 대상 여성들의 신분은 사족, 양인, 천인(기생, 여종)으로 다양하다.[7] 본 장에서는 『청성잡기』에 수록된 여성 인물의 형상을 '烈女', '義俠', '忠節'의 세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세 유형의 여성 형상은 모두 윤리의 수행 주체로서의 여성의 모습을 그려낸 것이다.[8] 각 유형별로 여성 인물들의 어떠한 면이 부각되고 있는지, 또 저자의 기술 태도는 어떠하며 그것이 가져오는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1) 烈女의 형상 - 선험적 윤리의 내면화 강조와 열 가치의 다변화

『청성잡기』의 기사 가운데 烈女로 분류할 수 있는 여성에 관한 기록은 5건이다. 편폭이 짧긴 하지만 열녀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사족 여성이 3명, 양인 여성이 1명, 천민(여종)이 1명이다. 이 가운데 세 명은 종사한 열부인데, 그중 한 명의 기사는 평소의 지조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마지막에 종사한 사실을 덧붙인 것이다. 그 외 한 명은 정절의 위협에 저항하다 죽음을 맞은 경우, 또 한 명은 유배지에 남편을 찾아가서 봉양하고 죽은 후에 시신을 반장한 사례이다.

아래 두 건은 종사한 열부의 행적을 담고 있다.

邊若淳의 누이는 영평 김씨에게 시집갔다. 김씨의 집이 강가에 있었는데, 시집에

는 중국의 역사적 사건 및 중국 인물을 소개한 기사가 다수 수록되어 있으며, 좌무제 관련 기사도 그중 하나이다. 즉, 일부러 중국 여성을 입전한 것이 아니라 명말 의리를 지킨 인물을 소개하면서 그 어머니를 언급한 것이다.

7) 이 가운데 취섬(2번), 복덕(2번), 운심(4번), 변씨(6번), 김씨(7번), 김씨(9번), 유분(9번), 황곡수 처(10번), 양씨(11번), 파녀(12번)에 대한 기록은 편폭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모두 小傳의 성격을 띠고 있는 글이다. 특히 취섬, 복덕, 운심, 파녀에 대한 기사는 문학적 완성도의 면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점 역시 탐구되어야 할 주제이지만 본고의 주제와는 거리가 있으므로 자세히 논하지는 않는다.

8) 세 유형 외에 또 하나의 형상으로 '風流才人'의 형상이 있다. 〈표1〉의 운심과 파녀가 여기에 해당한다. 두 편의 기사는 '여성 예술가'에 대한 저자의 관심을 보여주는 글로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여타의 여성 형상과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들어가기도 전에 남편이 물에 빠져 죽었다. 변씨가 줄곧 자결하여 남편을 따르고자 했는데 집안 식구들이 힘써 막아서 죽지 못했다. 오래 지나서 방비가 느슨해졌다. 막 추워지려 할 때 변씨가 순무김치를 담그다가 짐짓 시누이에게 농담처럼 말하길, "이 김치 먹을 때 아가씨 내 생각할까요?"라고 하였으니 기어코 죽겠다는 말이었다. 식구들은 무심히 들었는데 밤이 되자 몰래 나가서 강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 시체를 꺼내보니 새끼줄로 그 몸을 칭칭 감아서 宸濠의 처 婁妃의 일과 비슷했다. 약순은 박학하고 시를 잘한 자였으니 아마도 누비의 일을 그 누이에게 들려주었던 모양이다.9)

남원의 상번군 黃曲壽의 아내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서울에 복무하러 가서 죽었다는 기별을 받았다. 며느리는 한 번 통곡하더니 그치고는 시부모에게 먹을 것을 권하였고, 그 모습이 그다지 슬퍼 보이지 않았다. 성복하고 나서는 손수 대나무로 발을 엮어서 그것을 끌고 남복 차림으로 상경하여 남편의 시신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와 빈소를 차렸다. 그런 뒤 몸을 깨끗이 씻고 밤에 빈소에 들어가 잤다. 아침이 늦도록 나오지 않기에 문을 열고 보니 시체를 끌어안고 죽어 있었다. 남편의 배가 그 아내의 배로 쑥 들어가 있었는데, 언 배와 따뜻한 배가 맞닿으면 반드시 따뜻한 배 쪽으로 쑥 들어가게 되어 있다. 끝내 떨어지지 않아서 함께 묶어서 묻었다. 烈이로다! 옛날에도 듣지 못했던 일이다.10)

앞의 인용문은 사족 집안 여성의 죽음을 다루고 있다. 시집에 가기도 전에 남편이 죽었으니 남편과의 정은 전연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바로 자결하려고 한 것은 변씨가 평소에 열 이념에 투철했기 때문이다. 가족들의 방비로 죽지 못하다가 그들을 안심시킨 후에 결국 자결하는 열녀의 형상은 여타

9) 成大中, 『靑城雜記』, 卷4, 《醒言》. "邊若淳之妹, 嫁永平金氏子. 金家臨江, 未歸而夫死於水. 邊常欲自決以殉, 家人力防之, 不得死. 久之稍弛. 方寒, 邊手理葅蓴, 故戱其妹曰: '嘆葅時, 娘念我否.' 言固決死矣. 家人不以爲意, 入夜潛出投江死. 出其屍, 乃用藁索, 遍結其軀, 與宸濠婁妃時事相類. 若淳, 博學能詩者, 豈以婁妃事, 聞之於其妹耶." 원문은 한국고전종합DB에서 제공하고 있는 한국고전번역원 소장 필사본 『청성잡기』를 이용하였다. 번역은 한국고전종합DB를 참조하여 필자가 새로 작성한 것이다. 본 DB에서는 '쵀언'을 권1로, '질언'을 권2로, '성언'은 권3-5로 편차하였다. 본고의 인용문도 이 편차를 따른다. 이하 인용문은 모두 『청성잡기』《성언》에서 발췌한 것이다. 따라서 저자명과 책명은 생략하고 권수(권3-5)만을 밝힌다.

10) 卷4. "南原上番軍黃曲壽之妻, 新婚未久, 夫上番於京, 而坊訃至家. 婦一慟而止, 勸舅姑食, 貌若不甚戚也. 旣成服, 乃手編竹箔挈之, 男服上京, 負夫屍, 返殯於室. 躬自潔澡, 夜就之宿. 晏朝不出, 開戶視之, 抱屍而死. 夫腹陷於其腹, 蓋凍肚與暖肚合, 則暖者必陷. 遂不得判, 並束而塟. 烈矣哉! 古未之聞也."

열녀전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것이다. 성대중이 변씨의 일을 기록한 것은 그 행적에 특이한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는 김치를 담그며 시누이에게 농담처럼 한 말이며, 또 하나는 온몸에 새끼줄을 칭칭 감고 죽은 것이다. 전자는 정서적 감동을 주는 삽화이며, 후자는 변씨가 얼마나 강렬한 의지를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면서 독자에게 충격을 선사하는 역할을 하는 화소이다. 신호는 명나라 때 사람으로 반역자였는데, 그의 처 누비가 여러 차례 남편에게 간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신호는 반역에 실패하고 체포되었는데, 이에 누비가 온몸을 끈으로 묶고 강에 투신하였다고 한다.(《王文成全書 卷33》) 변씨가 자기 몸을 새끼줄로 묶은 것은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긴 것이다.

두 번째 인용문에 나오는 황곡수의 처에 대한 일화 역시 특이한 화소를 담고 있다. 남편이 상번군이라고 했으니 양인 신분임을 알 수 있다. 그 아내는 성씨가 남아 있지 않은데, 마찬가지로 양인 신분이었을 것이다. 남편의 죽음에 덤덤하게 대처하면서 시집 식구들을 돌보고 의연히 장례를 치른 후에 조용히 자결하는 열녀의 형상은 여타의 열녀전에서도 확인되는 모습이다. 황곡수 아내의 행적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남복을 하고 남편의 시신을 몸소 짊어지고 왔다는 것과 남편을 끌어안고 죽어 두 사람의 배가 붙어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이다. 후자의 행적은 남편의 죽음 뒤의 덤덤한 태도와 대비되어 더욱 극적인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 성대중은 이에 대하여 옛적에도 듣지 못했던 열이라며 특필하고 있다.

두 여성의 공통점은 시집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성이라는 것으로, 심지어 변씨는 아직 시집으로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였다. 제대로 된 결혼생활을 해보지도 못한 '젊은/어린' 여성들의 종사는 그 인물이 특별히 이념에 투철하였음을 보여준다. 결혼생활을 통해 삼종의 도를 체득해가거나, 남편이나 시집 식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한 가문에 종속된 여성으로서의-를 인식해 간 것이 아닌 것이다. 그렇기에 이들의 죽음은 더욱 장하고 기특한 것으로 서술된다. 이들 두 여성은 열 관념을 선험적인 윤리로서 철저하게 받아들인 인물들이며, 거기에 더해 그 행적에 '기이한' 요소가 있었다는 점에서 『청성잡기』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젊은 여성들은 어떻게 하여 그러한 투철한 이념을 내면화할 수

있었을까. 변씨의 특이한 행적은 그가 시집오기 전에 기른 바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누비의 고사는 여성들이 기초적인 독서만으로 쉽게 얻을 수 있었던 지식이 아니다. 그래서 그의 오라비가 박학하였기에 누이에게 이를 알려준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을 덧붙였다. 누비의 일 하나만 들어서 말했지만, 사족 집안의 남다른 가르침을 암시하고 있다. 한편 『청성잡기』는 파주의 여종 유분의 일을 전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신분이 낮은 어린 여성이 어떻게 하여 열 관념을 배우게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 파주 읍점에 열녀 有分의 정문이 있다. 지붕은 띠로 엮었고, 붉은색 흰색이 희끄무레해져서 곧 썩어서 무너질 것 같다. 유분은 남의 집 여종이었다. 어려서 그 조모를 따라 紅門 아래서 쉬어갔는데, 붉은 문을 세우는 까닭을 물었다. 조모가 답하길 "효자와 충신과 열녀는 관아에서 문을 세워 기려주거든. 그때 이런 붉은 문을 세워 준단다." 어떻게 해야 열녀라고 하는지 묻자, "남편이 죽어도 재가하지 않는 자를 열녀라고 하지."라고 답해주었다. 유분이 한참을 感慨한 표정으로 있었다. 시집가게 되자 마을에서 그 어짊[賢]을 칭찬하였다. 마침 친정에 다니러 왔다가 산기슭 밭에서 곡식을 베고 있었는데, 흉악한 젊은 놈이 그 모습에 반해 겁탈하려고 하였다. 유분이 힘껏 저항하다 흉기에 배를 찔렸다.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기어서 집으로 오니 그 어미가 이유를 묻고는 울면서 말했다. "너는 죽는 것이 무섭지도 않더냐. 어쩌자고 저항하였느냐." 유분이 성내며 말했다. "제가 어찌 죽음을 겁내겠습니까." 움켜쥔 손을 놓으니 창자가 튀어나와 죽었다. 관가에서 그 흉악한 젊은 놈을 잡아서 죽이고 마을에 정문을 세워 주었다.[11]

이 이야기는 성대중의 아들 성해응의 『硏經齋全集』《草榭談獻》에도 수록된 열녀전이다. 성해응의 기록 역시 대략 비슷한데 여기서는 유분을 坡州驛의 노비 金乭夢의 처라고 밝혔으며, 조모와의 대화가 이웃집 노파와의 대화로 바뀌어 있다. 또, 유분이 남자에게 저항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서술했다. 어머니와의 대화 내용도 조금 다른데, 어머니가 "너는 죽음이 두렵지도 않더냐.

11) 卷4. "坡州邑店, 有烈女有分旌門. 蓋以編茅, 赤白漫漶, 行且頹朽. 有分, 人家婢也. 幼從其祖母, 憩於紅門之下, 問其所以紅也. 祖母答曰: '孝子忠臣烈女, 官旌其門, 有此紅也.' 又問何如而謂之烈也, 答曰: '夫死不再嫁者, 謂之烈女.' 有分慨然久之. 及嫁, 里閭稱其賢. 適歸其家, 刈於山田, 惡少艷其貌而劫之. 有分力與之抗, 凶刃潰其腹. 手握之, 匍匐至家. 其母問其故而泣曰: '汝不畏死耶. 何與之抗也.' 有分恚曰: '兒豈畏死者耶.' 釋其握, 腸出而絶. 官捕惡少戮之, 而旌其閭."

어찌 조금 굽혀서 살기를 구하지 않았느냐.[汝不畏死耶? 何不少屈以求生.]"라고 하자 유분이 "어머니는 어찌하여 저를 욕되게 하십니까. 제가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이겠습니까.[母何辱我. 我豈畏死者耶.]"라고 하였다고 되어 있다. '少屈以求生'했어야 한다는 어머니의 말과 '母何辱我'라는 답이 유분의 의지를 더 강렬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유분 어머니의 말을 통해서 천민 여성들이 열 관념을 지켜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분은 우연히 '열녀'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 뜻을 깊이 새기고 있다가 결연히 이를 실천하였다. 성대중의 이 기록은 여종 신분의 여성이 어떻게 하여 이런 장한 행위를 하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열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실천할 수 없다.[12] 변약순의 누이와 황곡수 아내와 마찬가지로 유분 역시 어릴 적부터 '투철한 이념'을 갖고서 그 윤리를 실행해 낸 인물이다. '격물치지'를 수양의 가장 앞 단계에 놓는 주자학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앎'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청성잡기』의 열녀전은 남편이 죽자 슬픔을 못 이겨 죽은 여성들-그들 역시 열녀라는 점은 같지만-보다는 열 관념의 내면화를 바탕으로 차분하고 당연하게 그것을 실천하는 여성의 형상을 그려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앎-내면화-실천'으로 이어지는 이 여성들의 행위는 '윤리의 실천'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들이다. 종사하거나 자결한 열녀들의 형상에서 성대중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이다.

한편 종사한 열부 가운데 吳允常의 처 김씨에 대한 기록은 살아있을 때의 지조에 초점을 맞춰 그 행적을 칭송하고 있다.

> 오윤상의 처 김씨는 김상성의 딸이다. 아비의 상에 상복을 벗으면 남편을 모시는 것이니 예가 그러한 것이다. 윤상이 저녁에 침소로 들어가자 김씨가 거절하며 말하였다. "출가한 몸이라 삼 년의 시묘살이를 할 수는 없으나 상복을 벗자마자 차마 지아비를 모실 수야 있겠습니까." 윤상이 평생토록 그 말에 부끄러워하며, 친한 사람에게 이 말을 해주었다고 한다. 맹헌자가 담제를 지난 후에 부인에게

12) 유분은 '정문'을 통해서 '열' 가치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이는 곧 나라에서 정려를 하는 것이 백성 교화에 실제로 도움이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 시중들게 할 수 있는데 침소에 들어가지 않으니 공자가 한 등급 높은 사람으로 여겼다. 부인은 남에게 복종하는 자인데 이와 같이 할 수 있었으니 현명하지[賢] 않은가. 윤상의 현명함[賢] 또한 알 수 있다. 그러나 끝내 자식 없이 죽었고, 김씨도 따라서 죽으니 조정에서 정문을 세워 주었다.13)

오윤상은 저자 당대의 인물이다. 그의 아내 김씨는 禮를 알았던 인물이며, 남편의 경솔한 행동을 나무라서 법도를 지키게 한 여성이다. 김씨 부인은 후일 남편을 따라 죽어서 정문이 세워지는데, 이 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의 열행이 아니라 '賢'이다. 성대중은 부인이란 남에게 복종하는 자인데 이렇게 할 수 있었으니 더욱 현명하다고 하였다. 또, 남편인 오윤상 역시 자신의 잘못을 고치고 부인의 현명함을 칭송할 줄 알았다는 점에서 '賢'한 인물로 기려지고 있다. 종사한 열녀이긴 하지만 열행보다 평소의 지조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였고, 그것이 남성에게 깨우침을 준 일로서 그려지고 있다.

열녀의 행적에서 '義'를 강조한 기술도 나타난다.

> 밀양 사람 李廷煥의 처 양씨는 남원 사람이다. 남편이 어떤 일에 연좌되어 종성으로 유배를 갔는데 오래도록 돌아오지 못했다. 밀양에서 종성까지 삼천 리가 넘고 양씨는 연로하였는데도 마침내 떨쳐 일어나 그곳으로 갔다. 삼 년이 지나 남편이 죽으면서 고향으로 돌아가 묻어줄 것을 부탁했다. 양씨가 유해를 짊어지고 걸어서 밀양까지 돌아갔다. 머무는 곳마다 그 義烈에 감동하여 그를 위해 함께 짊어지고 가주었다. 연로의 수령들도 모두 양식을 살 비용을 도와주었다. 열행이 사람을 감동시키기가 이와 같이 쉽다. 또 선을 행하는 자를 돕는 것은 사람마다 지니고 있는 착한 마음에서 나옴을 볼 수 있다.14)

이정환 처 양씨는 1808년 6월 열행으로 정려된 인물이다. 이정환이 어떤 인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일성록』 1788년(정조 12) 8월 15일 기사에

---

13) 卷4. "吳允常妻金氏, 相聖女也. 父喪祥而御於夫, 禮則然矣. 允常夕就焉, 金氏拒之曰: '出嫁之身, 縱不得三年於廬, 祥而忍從御乎.' 允常終身愧其言, 嘗以語所親云. 孟獻子禫比御而不入, 孔子以爲加於人一等. 婦人伏於人者, 而乃能如此, 不亦賢哉. 允常之賢亦可知也. 然卒無子而沒, 金氏下從焉, 旌其閭."

14) 卷5. "密陽人李廷煥妻梁氏, 南原人也. 夫坐事配鍾城, 久之未返. 密陽距鍾城, 三千有餘里, 而梁亦年老矣, 乃挺身就之. 三年而夫沒, 托以歸葬, 梁負其骸, 徒步還密陽, 居停者感其義烈, 爲之偕負以往, 沿路守宰, 皆助其粮費. 烈行之感人也易如此, 亦可見爲善者之多助, 出於秉彝之均也.

형조에서 李七奉의 죄에 연루된 인물들을 移配하겠다고 아뢴 일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정환을 甑山縣으로 보낸다는 말이 있다. 『일성록』 1808년(순조 8) 6월 30일 기사에서 경상좌도어사 李愚在가 별단으로 올린 경상도의 孝烈 명단에 양씨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우재는 "간혹 출도한 고을이 있으면 士民들이 몰하여 褒奬해 주기를 청하는데 그것이 권축을 이루어 이루 기억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동 사람 柳聖範의 효행과 밀양의 士人 이정환의 처 양씨의 열행은 과연 그 상세한 사실을 듣고 저도 모르게 감탄하여 별단에 뽑아서 포함하였습니다. 유성범의 행실은 지극히 효성스럽다 할 수 있고, 양씨는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배소까지 남편을 따라갔다가 마침내 수천 리를 시신을 싣고 와서 장례를 치렀으니 실로 그 행실이 탁월하고 남달라서 남자도 할 수 없는 일을 능히 해냈습니다."[15]라고 말하고 있다. 이우재가 말한 양씨의 행적은 『청성잡기』의 기록과 일치한다.[16] 이날 양씨에 대한 정려가 결정되었다.[17]

양씨의 행적은 열행이라고 명명되었으나 앞서 인용한 종사한 열부들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즉, 그의 행동은 열 관념을 실행하기 위해 윤리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기보다는 남편과의 신의를 소중히 여겨서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헌신한 것이다. 적지 않은 나이의 사족 부인으로서 변방 지역까지 남편을 찾아가 봉양했으며, 고향에 묻히고 싶다는 남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스스로 시신을 짊어지고 먼 길을 돌아왔다. 이러한 양씨의 행위에 대해 성대

15) 『日省錄』, 1808년(순조 8) 6월 30일(갑자), 「召見慶尙左道御史李愚在于誠正閣」. "或有出道邑, 則士民輩呈單請褒積, 成券軸, 不可殫記. 而至於安東柳聖範之孝行、密陽士人李廷煥之妻梁氏之烈行, 果得其詳, 不覺感歎, 抄入於別單中. 而柳聖範則可謂純孝之行, 梁氏則隨夫謫所, 不避夷險, 畢竟返葬數千里戴尸, 實係卓異之行, 而能爲男子所不能爲之事矣."

16) 『청성잡기』는 성대중에 의해 1790년부터 1801년까지 10여 년 동안 집필되고, 그 후 성해응에 의해 가필되어 1806년 무렵에 완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소동, 앞의 글) 『청성잡기』에 이 일이 수록된 것은 밀양 열녀의 이야기가 중앙의 사대부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후의 일일 것이다. 『일성록』에 의하면 이우재가 처음으로 이 일을 조정에 보고한 것인데, 그렇다면 성대중 역시 1808년 이후에 이 일을 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추측이다. 그러나 『청성잡기』의 저작 연대를 고려하면, 양씨가 정려되기 이전에 저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확답을 내리기 어렵다.

17) 『純祖實錄』, 1808년(순조 8) 6월 30일(갑자). "禮曹因御史別單, 請安東下吏權聖範孝行、密陽士人李廷煥妻梁氏烈行竝旌閭, 從之."

중은 '義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의 행적은 『청성잡기』에서 義妓로 표양한 취섬이나 복덕과도 일정 부분 겹친다. 취섬과 복덕은 유배 간 남성을 따라가서 그를 돌보았으며, 그중 복덕은 남자가 죽은 후 반장까지 도맡았다. 관부와 고을 사람들이 복덕을 도와준 것도 양씨의 상황과 비슷하다.[18] 기생의 행위는 부부간의 도리가 아니라 순전히 신의와 의협심에서 나온 것이었기에 '義俠'으로 규정되었고, 양씨는 남편에게 신의를 보인 것이므로 '義烈'이 된 것이다. 성대중이 '義'라는 가치에 대해 '烈'과 구별되는 분명한 개념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에 '열'이라고 뭉뚱그려 표현되었던 여성의 윤리를 그 내용에 따라 세분하고 있음이 주목된다.[19]

2) 義俠의 형상 - 젠더화된 도덕의 위계 극복과 왜곡된 전형의 창출

다음으로 일종의 '義俠'으로 꼽을 수 있는 인물들이 있다. 함양 기생 취섬과 경성 기생 복덕이 그들이다. 두 인물은 하나의 기사로 묶여 있는데, 그 행적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취섬의 이야기는 당시 여러 문헌에서 전하고 있는데, 등장인물의 이름이나 행적의 세부 사항이 조금씩 다르다. 『청성잡기』에 수록된 취섬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 취섬은 함양의 기생이다. 일찍이 選上妓로 서울에 들어왔는데 자태와 재주가 한 시대에 으뜸이었다. 지체 높은 재상이 천금으로 부르고 음식과 의복, 가마를 주인집보다 더 융숭히 해주었는데 취섬은 달갑게 여기지 않고 돈과 의복을 봉해 돌려보내고 돌아보지 않았다. 서울에서 지낸 지 몇 년 만에 俠游들 사이에서 취섬이 사는 골목을 모르는 것을 수치로 여기게 되었다. 함양으로 돌아오니 沈鑰이 이웃 고을 수령으로 있었는데, 취섬을 총애하여 애첩[專房]으로 두었다. 그런데 심약이 형 沈鏞의 역모에 연좌되어 먼 북쪽 변방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 취섬은 자기의 재산을 기울여 그를 따라가 정성을 다해 봉양하였다. 다시 남해가로 이배되자 누더기 옷을 입고 맨발로 진흙을 밟으며 물을 길러 다녔다. 서울의

18) 앞서 인용한 황곡수의 아내 역시 남편의 시신을 손수 짊어지고 왔는데, 그 기사에서는 특이한 죽음이 좀 더 강조되고 있다.

19) 위 기사는 또한 양씨의 행동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선행을 하도록 만든 일을 강조하고 있다. 열녀전이기는 하되 '사람마다 가진 선한 마음의 확인'이라는 또 하나의 주제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 상인이 이곳을 지나다가 그를 알아보고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너는 취섬이 아니냐. 어찌하여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나를 따라오면 비단옷과 진귀한 음식이 끊이지 않으리라." 취섬이 흐느끼며 말했다. "그대의 지극한 뜻에는 감사하오. 그러나 내가 진실로 떠나고자 했다면 어찌 그대를 만나기를 기다렸겠소. 따르는 이가 곤경에 빠졌는데 차마 중간에 등질 수는 없다오." 상인이 오래도록 탄식하더니 그에게 베 몇 필을 주고 떠났다. 상인 역시 義俠이다.[20]

취섬 이야기는 당시 시정에서 유협을 숭상하던 풍조와 관련이 있다. 서울의 '俠游'들 사이에서 취섬의 집을 모르면 수치로 여겼다는 말에서 시정의 협객들과 기생들이 어울렸던 정황[21]을 포착할 수 있다. 이들이 취섬을 따른 이유는 그의 미모와 재주 때문이기도 하지만, 천금도 돌아보지 않는 호방함을 지녔기 때문이다. 취섬의 그러한 자질은 情人인 沈鑰에 대한 헌신적인 뒷바라지라는 행위로 구현된다.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하여 고생하였으며, 그것도 단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고된 노동을 수행하기까지 한다. 이익을 좇지 않고 남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는 것, 信義를 중시하는 태도가 바로 '俠'이요, '義俠'이다.

취섬의 행동을 烈이라고 명명할 수도 있으나 성대중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가 심약을 따라간 것은 지금의 관점에서 보자면 애정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기사의 문면에서 취섬의 애정을 확인할 수는 없다. 취섬은 상대방이 자신을 사랑해주었기 때문에 그 恩義를 잊지 못해 자신을 희생한 것이다. 앞부분에서 언급한 취섬의 호협한 기질과 어울리는 행동이다. 고전서사에서 여성이 주체적인 감정으로서의 애정을 추구한 사례는 드물지만[22]『於于野談』등 일부

---

20) 卷3. "翠蟾, 咸陽妓也. 嘗選入都下, 態藝特冠一時. 貴宰聘以千金, 飮食服御, 尙於主家, 而蟾意不樂也, 封金與衣服, 謝去不顧. 居都下數年, 俠游以不識蟾巷爲恥. 及歸咸陽, 沈鑰爲鄰倅, 寵以專房. 鑰坐兄鍾逆, 配北荒. 蟾傾産從之, 饋養曲備. 又從移配南海上, 襤裙赤脚, 跋泥而汲. 京賈過而識之, 持與泣曰: '若非翠蟾乎. 何自苦如此. 第從我去, 錦衣珍食, 在汝踵也.' 蟾歔欷曰: '感君至意, 然我誠欲去, 豈待君哉. 顧從人於阨, 不忍徑背之也.' 賈嗟嘆良久, 與之布數端而去. 賈亦義俠也."

21) 정우봉, 앞의 글, 438면.

22) 예를 들어 기생이 주인공인 서사, 즉 「춘향전」이나 「옥단춘전」과 같은 이야기들은 기생의 사랑에 대한 서사가 아니라 기생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서사이다. '열녀 기생' 이야기에서 기생의 정절이 강조됨에 따라 기생의 섹슈얼리티는 무성화된다. 대개는 남성의 육체적 욕망, 그리고 여성의 신분 상승 욕망이 결합한 이러한 관계는 어느 순간 사랑으로, '정'으로 표현되고 '정절'이라는 도덕적

자료에서는 기생의 육체적 욕망이 묘사된 사례가 없지 않고, 감정에 관해서는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情이 깊었다'는 표현 정도는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기사에서 취섬의 행위 동기는 애정이라기보다 순전히 신의인 것으로 그려진다.[23] 취섬과 함께 묶여 전하는 복덕 역시 신의를 구현한 인물이다.

> 같은 때에 柳東垣의 첩이 있었는데, 북쪽 지역의 기생이었다. 동원이 북쪽에서 수령 노릇을 할 때 이 기생이 그를 모셨다. 뒷날 동원이 친족의 죄에 연좌되어 영변으로 유배를 갔는데, 기생이 듣고서 이미 남편도 있고 자식도 낳았는데 버리고서 서울로 가서 의금부 관리의 집에서 품을 팔며 옥안을 자세히 알아보았다. 그랬더니 동원은 다만 죄 없이 걸려든 것일 뿐이었다. 마침내 영변으로 가서 그가 죽을 때까지 모셨다. 그런데 그 기생은 온갖 재주가 있었던지라 동원에게 이르길, "제가 드나드는 일에 대해서는 묻지 마십시오."라고 하고는 활쏘기나 노름으로 내기하는 곳마다 찾아가서 반드시 돈을 많이 따가지고 돌아와 동원이 이 덕분에 살 수 있었다. (…) 북쪽으로 가서는 해마다 동원의 제사 때가 되면 꼭 편지를 보내 문안하였다. 기생의 이름은 福德이며 鏡城 여자이다.[24]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복덕이 서울로 가서 의금부 관리의 집에서 품팔이를 하며 동원의 옥안을 살펴보았다는 것이다. 그가 영변으로 가기로 결심한 것은 동원에게 죄가 없음을 확인한 후이다. 복덕은 남편과 자식까지 있었는데도 자신이 '모시던' 양반이 억울하게 고난을 겪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위 취섬의 경우 그래도 '애정'이라는 동기를 짐작할 수 있으나 복덕의 행동은 애정보다는 上官에 대한 의리의 발로인 것처럼 기술되어 있다. 만약 애정이 문제였다면 그가 정말로 '죄인'인지 억울하게 걸려든 것인지 알아보려 하지

가치가 여기에 겹쳐지게 된다. (김진희, 「조선조 서사물에 나타난 기생 섹슈얼리티의 함정」,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1, 337, 361-362면)

23) 같은 이야기를 담아낸 것으로 보이는 李沃의 「俠娼奇聞」에서는 유배 간 남자를 따라간 기생이 남자에게 실컷 즐길 것을 권하고 마침내 같이 죽는다. 이른바 情死를 결행한 것이다. 「협창기문」에서도 이들 남녀의 '애정'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사를 권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기생의 행위에서 그러한 감정을 도출할 수 있다.

24) 卷3. "同時有柳東垣妾, 北妓也. 東垣倅於北, 妓侍焉. 後東垣坐族累, 配寧邊, 妓聞, 旣畜夫生子矣, 捨之入京, 傭於禁吏, 審知獄案. 東垣直橫累耳. 乃赴寧邊, 事之終其身. 然妓工百藝, 謂東垣'無問我出入', 射博之釀, 無不往與, 錢必盈握而返, 東垣賴以活. (…) 至北, 歲一書問, 必及東垣之祭. 妓名福德, 鏡城姬也."

않았을 것이다.

앞의 취섬의 예에서도 심약이 억울하게 연좌된 것으로 나와 있다. 이러한 기술은 상대 남성이 정말로 '죄인'이었다면 이 기생들의 수발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애정이란 무조건적인 것인 반면 의리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수반한다. 친족의 죄에 연루된 경우 그 실상이 모호한 경우가 많았고, 옥사가 종결되고 나면 그 결과에 대해 일정한 의론이 조성된다. 취섬 이야기의 심약은 부정확한 이름이지만 이본들을 고려할 때 을해옥사와 연루된 인물에 관한 이야기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25] 유동원 역시 을해옥사에 연좌된 인물이다.[26] 유배 간 남성들이 의로운 인물이었다는 말은 없으나, 자신의 잘못보다 더 큰 벌을 받았기에 동정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억울한들 그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서줄 사람은 없었다. 취섬과 복덕은, 그렇기에 사대부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해낸 이들이다.

『청성잡기』에서 취섬과 복덕은 애정이라는 '私的인' 감정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公的인 의리를 구현한 인물로서 그려진다. 그것은 복덕이 私의 영역인 자신의 가정을 버리고 윗사람의 어려움을 구제하기 위해 귀양지로 달려간 것에서 극대화된다. 그가 장례를 치른 후 남자를 따라 죽지 않고 유유히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자신의 '직분'을 다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청성잡기』의 취섬은 같은 인물을 다룬 것으로 보이는 「俠娼奇聞」과 『揚隱闡微』(「秋香愛死沈密陽」)의 기록과는 분명 그 지향이 달라 보인다. 「협창기문」의 기생과 『양은천미』의 秋香은 상대 남성과 함께 죽는 것을 택한다. 성대중이 그러한 결말을 알고서도 생략했는지 아니면 해당 부분이 빠진 전승을 접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가 취섬을 '애정의 화신'으로 묘사하는 것에 동의하지 못했음은 분명하다. 취섬과 복덕의 일이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 이는 분명

25) 같은 인물을 다룬 「협창기문」이나 『揚隱闡微』의 「秋香愛死沈密陽」 모두 1755년 을해옥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협창기문」에서는 상대 남성 및 기생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양은천미』에서는 沈鏞의 형 沈鎔이라고 했다. (조혜란, 앞의 글, 86-87면)

26) 『영조실록』을 보면 영조가 1755년 3월 20일에 유동원을 석방하여 還配하라는 명을 내렸으나 尹東星이 반대하여 巨濟府로 島配하였다고 나와 있다. 1758년 1월 8일에도 유배 간 유동원을 석방하라는 명이 있었다. 金尙魯, 李昌壽 등이 반대하였으나 명을 거두지 않았다. 그러나 『청성잡기』에는 유동원이 영변에서 유배 생활을 했으며 그곳에서 죽은 것으로 나온다.

‘애정’이라는 동기와 맞닿아 있을 것이지만 『청성잡기』에서는 그러한 사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보통 義나 俠의 가치는 節이나 烈과 분리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위 두 인물의 경우 열행이나 절의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 상대 남성에 대한 지극한 ‘감정’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두 인물에게선 애정뿐 아니라 신분 상승의 욕구나 知己에 대한 갈망의 태도도 엿보기 어렵다.[27] 위 기사에서 유일하게 감지되는 것은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돌아보지 않고 곤경에 빠진 이를 구하려는 의로운 태도이다. 또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남성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보다 정확히는 자신의 ‘上官/主人’을 위해 희생하는 태도이다. 이들의 행적만을 놓고 보면 ‘애정’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여성의 모습이 간취된다. 그러나 『청성잡기』의 위 기사는 이들의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다. ‘신의’라는 것 역시 감정과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情人 또는 가족(부모와 자식, 부부 등) 사이의 감정과는 다른, ‘朋友’ 또는 ‘남’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공변된’ 윤리에 가깝다. 한편 취섬과 복덕의 의협심은 자신들의 윗사람을 향해 발휘되고 있다는 점에서 ‘忠’과도 맞닿아 있다. 忠은 ‘나를 알아준 사람’에 대한 보답이라는 측면에서 신의와도 연결된다. 『史記』《刺客列傳》의 인물들이 ‘자신을 알아준 윗사람(주군)’을 위해 목숨을 바치듯이 이들 기생 역시 ‘곤경에 처한 윗사람’을 위해 자신의 직분을 다하는 충직한 모습을 보여준다.[28]

이러한 『청성잡기』의 태도는 여성의 행위 동기를 남성과 동일한 층위의 의협으로 규정함으로써 젠더화된 도덕의 위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주

27) 정우봉은 조선 후기 俠妓의 유형을 기생들이 꿈꾸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넷으로 나누었다. 첫째는 知己의 만남과 애정 추구, 둘째는 신분을 넘어서고자 하는 꿈, 셋째는 더불어 사는 삶, 넷째는 사회적 규범과 금기에의 도전이다. 여기서 취섬과 복덕은 첫 번째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정우봉, 앞의 글, 442면)

28) 이는 물론 실제로 취섬과 복덕이 그러한 동기에서 행동했다는 뜻은 아니다. 특히 복덕이 가족들까지 버리고 유동원을 따랐다는 것은 그가 수령이었을 때 깊은 관계를 맺었음을 암시하며, 그렇게 가정해야만 복덕의 ‘비상식적인’ 결정-가족을 버린 일-에 대해 납득할 수 있다. 본고에서 취섬과 복덕의 ‘공적인 태도’를 말한 것은 실제 여성들의 감정이나 행위 동기를 말한 것이 아니라 『청성잡기』의 기술 방식이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목할 만하다. 열은 오직 여성에게 속하는 덕이며, 여성이 지아비를 위해 지켜야 하는 가치이다.[29] 그러나 위 이야기에서 취섬과 복덕은 상대 남성과 '부부'로서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기생으로서 잠시 총애를 입은 사이이며 더 이상의 책무는 없다고 볼 수 있다.[30]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남성에게 애정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기생으로서 절의를 지킨 자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 관계가 어떻든 스스로는 그 남성을 '지아비'로 여겼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대중은 이 여성들과 상대 남성의 '감정적 유대'를 생략함으로써 오히려 이들의 신의를 더 부각할 수 있었다. 이들은 (장하긴 하지만 흔한) 열녀라기보다는 '곤경에 빠진 恩人'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대범한 인물들이요, 억울한 사족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를 구제해주는 보기 드문 여성들이다.[31] 이들은 이 시기 협객으로 알려진 남성 인물들에 뒤지지 않는 호협한 기상과 의리를 보여준다. '여성의 덕'에 갇히지 않은, 그리고 주로 시정의 중하층 인물들에게 발견되는 가식 없는 인간의 도리를 여성, 그것도 하층의 여성에게서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32]

그러나 바로 이 점에서 위 기사의 기술 태도를 문제시할 수 있다. 여성 인물의 '감정'과 '욕망'을 사건 기술에서 배제함으로써 인물의 실상을 왜곡하고 그로써 하나의 '가상'을 창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취섬이 심약을 따라간 이유는 '애정'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가 자신의 재산을 기울이고 고된 노동을 감내하면서까지 남자를 봉양한 이유는, 유배지에서 비로소 그를 자신의 '지아비'로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은 아닐까. 기생으로서

29) 물론 '열'은 여성이 자신의 '정조'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포함하며, 이는 남편이 없는 여성에게도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한 명의 지아비를 섬겨야 하는 위치에 있던 이들에게 주어진 책무로서, 여러 남성을 상대해야 하는 기생이나 주인에게 그 섹슈얼리티가 귀속되어 있었던 여종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30) 실제로 기생은 수령의 '현지처'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고,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를 '지아비'로 여길 만하다. 그러나 이는 주관적인 바람이었을 뿐, 이들 사이에 - 특히 남성 측에 - 부부간의 '책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31) '천민 여성의 희생'이 사족 계급의 죄의식을 代贖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듯하다. 이 점은 좀 더 생각해 볼 문제이다.

32) 물론 이들이 이러한 '능동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천민 여성으로서 어느 정도 거취가 자유로웠기 - 즉, 지아비를 바꿔도 되는 위치 - 때문이기도 하다.

가질 수 없었던, 상대 남성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차지하기 위해서였던 것은 아닐까. 복덕의 경우는 어떨까. 이야기 속에서 복덕은 명민하고 지혜롭다. 관부와 고을 사람들을 감동시켜 返葬에 성공한 일은 열녀의 사적과도 일치한다. 유씨 집안 사람들은 울면서 그를 붙잡지만 그는 미련을 두지 않고 차분하게 떠나간다. 복덕의 사적 영역, 즉 자신의 남편과 가족, 그리고 사족 남성을 향한 '애정'이나 그 어떤 종류의 감정도 짐작하기 어렵다. 그는 억울한 처지에 놓인 사족 남성과 그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기생에게 덕을 보았던 그의 가족들(柳氏)에게 구원자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전연 자신의 권리-예를 들어 함께 죽어 남자와 합장된다든지, 본처 자손들의 봉양을 받는다든지-를 주장하지 않고 물러난다. 그는 취섬보다 더욱 忠에 가까운 인물이다.

『청성잡기』에 수록된 두 명의 義妓에 대한 이야기는 당시 시정의 새로운 인간상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주목된다. 저자는 여성으로서 특출한 신의를 보여준 인물들을 소개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의 도덕의 수행자로서 여성의 위상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 여성들의 감정이나 욕망을 말하지 않고 그들의 공적인 태도를 부각시키는 글쓰기 방식은 이들의 행동을 열이라는 여성 윤리의 발현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막아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반대로 그들의 행위 동기를 짐작할 수 없게 함으로써 인물들의 '주체성'에 대해 어떤 논의도 할 수 없게 만든다. 이와 같이 여성의 감정과 욕망, 행위의 동기를 말하지 않음으로써 이념에 투철한 전형적인 형상을 창출하는 것은 열녀전의 글쓰기에서 흔히 나타나는 기술 태도이다. 전형적 형상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인물의 실상을 왜곡함으로써 하위주체의 목소리를 사장하는 결과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술방식이 기생을 대상으로 한 글에서, 젠더화된 도덕의 위계를 일정 부분 무너뜨리고 있는 텍스트에서조차 여전히 고수되고 있음이 인상적이다.

3) 忠節의 형상 : 공적 윤리의 능동적 수행자로서의 여성 묘사와 그 한계

마지막으로 충절의 여성 형상을 살펴본다. 아래 두 여성은 가문을 위해,

또는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결한 인물들이다.

> 趙維鎭은 재상 趙載浩의 조카인데, 재호의 화에 걸려서 재호의 무죄를 항변하다 심하게 형벌을 받아 온몸에 온전한 데가 없이 죽었다. 옥사가 조금 느슨해지자 세상에서 그의 행동을 [아무나 하기 힘든] 어려운 일로 여겼다. 그 어머니 김씨는 光啓의 누이이다. 며느리를 불러 말하길, "집안의 화가 이 지경에 이르러서 장부가 죽었는데 부녀자 중에 아무도 죽는 이가 없다면 이 또한 사족의 수치가 아니겠느냐. 너는 어린 자식이 있고 제사를 받드는 일이 중하여 죽을 수 없으니, 내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 하고 드디어 먹지 않고 죽었다. 아아! 우리나라가 사족을 培植함이 깊음을 여기에서 또한 알 수 있다.[33]

> (…) 좌무제의 어머니 서씨는 선비 집안의 딸로서 글을 알았으며 大節이 있었다. 숭정 갑신년(1644) 무제가 江東에서 督餉을 맡게 되어 그 어머니가 京師에 석 달을 머물고 있었다. 경사가 함락되자 무제의 종형 이부시랑 무태가 수레에 무제의 어머니를 태우고 샛길로 내양으로 돌아가는데, 상서 장흔과 시랑 학진도 함께 걸어서 따라갔다. 백구하에 이르러 무제의 어머니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했다. "이곳은 장숙야가 목을 찔렀던 곳이로다." 그러고는 무태를 불러서 나라를 위해 죽지 못함을 꾸짖었다. "나는 부인이지만 나라의 은혜를 받았으니 초야로 도망해 살기를 구할 수 없다. 내 아들에게 힘쓰라는 말을 전해주게." 또 장흔과 학진 두 사람을 꾸짖어 말했다. "공들은 대신이니 오직 죽음으로써 몸을 편히 하고 命을 세울 수 있소." 말을 마치자 죽었으니, 도성을 나온 후로 먹지 않은 지 이미 수일이 지났던 것이다. (…) 옛말에 충신을 구하려면 반드시 효자의 가문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였고, 이런 어머니가 없으면 이런 아들이 날 수 없다고 했으니 참으로 그렇지 않은가.[34]

앞의 인용문은 조재호(1702-1762)의 조카 조유진의 어머니 김씨에 대한

---

33) 卷3. "趙維鎭, 趙相載浩從子也, 與於載浩之禍, 抗辭白載浩無罪, 桁楊酷下, 身無完肌而死. 獄亦少紓, 一世以爲難. 其母金氏, 光啓姊也. 呼其婦, 語曰: '家禍至此, 丈夫死焉, 而婦女無一死者, 不亦爲士族恥哉. 若有稚子, 宗祀重, 不可死, 我當死之.' 遂不食死. 嗟乎! 我朝之培植士族之深, 於此亦可知也."

34) 卷4. "懋第母徐氏, 儒家女也, 知書有大節. 崇禎甲申, 懋第督餉江左, 母留京師三月. 京師陷, 懋第從兄吏部郎懋泰, 以車載母, 間道東歸萊陽, 與張尙書忻、郝侍郎晉, 徒步以從. 至白溝河, 母仰天嘆曰: '此張叔夜絶吭處也.' 呼懋泰前, 責以不能死國. '吾婦人, 受國恩, 不能草間求活. 寄語吾兒勉之.' 又責張郝二人曰: '公大臣也, 惟一死, 可以安身立命.' 言訖而死. 出都不食, 已數日矣. (…) 古所謂求忠臣, 必於孝子之門, 而非是母, 不能生是子者, 不其然乎."

기록이다. 조재호는 영의정 趙顯命의 조카이며 孝純王后의 오빠로서 우의정까지 올랐던 인물이다. 1759년 계비 책립을 반대했다가 유배를 갔으며 이듬해 해배되어 춘천에 은거하고 있었다. 1762년 사도세자가 화를 입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로 구원하러 갔다가 역모로 몰려 사사되었으며, 1775년에 신원되었다. 조재호는 억울하게 화를 입었고, 그 조카 조유진은 목숨을 걸고 이에 항변하다가 죽음에 이르렀다. 성대중이 보기에 이들은 의를 행하다 목숨을 잃은 것이다. 당시 집안에 화가 닥치자 조유진의 어머니는 '사족의 수치'가 되지 않기 위해 자결했다. 성대중은 이것이 나라에서 사족을 잘 길러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평했다.

뒤의 인용문은 명말의 신하로서 청에 협조하기를 거부하고 죽은 좌무제의 어머니 서씨의 일화이다. 앞에서는 좌무제의 효성 및 남다른 위엄에 대해 말하고, 이어서 그 어머니의 죽음을 위와 같이 서술했다. 서씨가 백구하에서 자결한 것은 장숙야의 행적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장숙야는 북송의 장수로서 금나라로부터 수도 변경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항전한 인물이다. 결국 막아내지 못하여 이듬해 徽宗과 欽宗을 호위하여 북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아무것도 먹지 않고 행렬을 따라가다 백구하에 이르러 자결했다. 서씨는 그곳에서 죽음을 택함으로써 살아남은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고자 한 것이다. 생략된 부분에서는 좌무제가 어머니의 시신을 찾고자 했던 일, 그리고 그가 머리 깎기를 거부하고 처형당할 때 형벌을 맡은 이조차 그에게 감동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앞의 기록에서 김씨의 선택은 사실 매우 특수한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죽은 남성의 아내가 종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일 것이다. 노모가 아들을 따라 죽어야 할 의리는 없다. 그러나 집안 여자 중에 아무도 죽지 않는다면 이는 부끄러운 일이니 자신이 죽겠다고 하였다. 집안의 남자들은 '억울하게' 죽은 것이고, 여자들 또한 '죽음'으로써 그들의 무죄를 강변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이야기의 흥미로운 점은 이 기록이 마치 며느리(아내)가 죽지 않고 어머니가 죽은 상황에 대한 해명처럼 읽히기도 한다는 것이다. 집안에 열녀가 나오지 않고 대신 노모가 죽었다. 김씨는 며느리에게 어린 자식이 있고 제사를 받들 의무가 중하니 죽지 말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김씨의 말로 인해 며느리가 종사하지 않은 것에도 명분이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이야기가 전승됨으로써 의로운 일을 행하고도 풍비박산이 난 조재호 집안은 다소간 위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족의 기상을 말하고 있는 이 기사는 동료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사족 집단 내에서의 보상의 기능을 하고 있다. 김씨는 그러한 기능을 위해 주조된 여성 형상이다.[35]

김씨가 가문의 명예를 위해 죽은 것이라면 좌무제의 어머니 서씨의 죽음은 국가에 대한 충절에서 비롯한 것이다. 서씨의 행적에서 주목되는 것은 그가 '가문/남성'과의 연계 없이 자신과 국가를 직접 연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는 부인이지만 나라의 은혜를 받았으니 초야로 도망가 살기를 구할 수 없다[吾婦人, 受國恩, 不能草間求活.]"고 한 서씨의 말은 이야기 속에서 피난을 가는 좌무태와 장흔, 학진을 부끄럽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앞의 사례에서 김씨는 士의 명예를 위해 죽었는데, 이 역시 공적인 대의명분을 추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대중은 김씨에 대해 조정에서 사족을 잘 길러낸 소치라고 하였으며, 서씨에 대해서는 그가 사족의 딸로서 평소 글을 알고 大節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 그런 어머니가 있었기에 좌무제와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었다고 하였다.

두 인물은 자신의 주체적인 판단으로 죽음을 선택했다. 특히 서씨의 경우에는 죽지 못하고 도망가는 남성들을 꾸짖고 있으며 그 아들보다도 먼저 자결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지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이들은 남성의 영역에 속한 윤리를 남성보다도 먼저 체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범한 여성들이다. 다만 서술된 상황을 잘 살펴보면 두 인물이 실제로는 충격을 받아서, 또는 기력이 쇠해서 죽게 된 것인데 후대의 윤색이 가해져서 자결한 것으로 알려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 점은 차치하고 기록에 나타난 형상을 일단 수용한다면, 이 두 기록에는 분명 능동적인 윤리의 수행자로서의 여성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여성들의 이와 같은 면모는 두 기록에서 서사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는 이 시기

35) 김씨의 자결이 허구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죽음의 실상에 대하여 기록자(또는 그 이전 단계의 전승자)의 일정한 의미 부여와 상황 해석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서사화하면서 일정한 형상으로 주조해내었다는 의미이다.

사대부 문인의 여성 인물의 형상화에 있어 발전적인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자가 이 두 여성의 행적을 기술한 것은 이들의 특출한 덕을 칭송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 기사들은 이 여성 인물들의 傳이 아니며, 이야기 속 인물의 행위는 그 바깥에 둘러쳐진 또 다른 담론의 층위에서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 김씨의 행위는 조재호 집안에서 확인되는 사족의 기상을 웅변하는 사례로서, 서씨의 행위는 대명의리를 지켜 죽음에 이른 좌무제라는 인물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거론된 것이다. 저자가 궁극적으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명예와 의리를 중시하는 사족의 기상, 그리고 죽음으로 오랑캐에게 항거한 명나라 유신의 의리이다. 이 여성들의 행적은 오직 그러한 맥락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저자가 이들을 능동적인 윤리의 수행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여성도 '(남성의 영역에 속하는) 윤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담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전쟁이나 국난의 상황에서 남성이나 가문을 매개하지 않고 여성 스스로 충절이라는 가치를 실현한 일은 논개와 같은 義妓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경우 義烈을 실천한 여성은 기생이며, 적장을 안고 죽은 것은 기생의 섹슈얼리티를 매개로 한 행위이다. 기생은 천인으로서 여성이긴 하지만 그 몸이 귀속되는 가문이나 남편을 가질 수 없는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논개가 의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위 기사에 등장하는 김씨나 서씨는 본래는 그러한 독자적 - 남성이나 가문을 매개하지 않은 - 윤리를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위치에 있다. 만약 사족 여성이 전란을 당하여 자결하였다면, 이는 예상되는 정조의 위협에 대한 선결 대응인 것이지 "비록 여자이지만 나라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전란 중의 여성들의 죽음은 열은 될지언정 충이 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기사의 서씨에게는 그러한 '선을 넘은' 발언-심지어 외간 남자이자 나라의 대신들에게 죽음을 권하기까지 하는-이 허용되었고, 또 칭송되기까지 한다. 이는 그가 '좌무제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梅環의 이야기(〈표 1〉의 1번 기사)도 비슷한 맥락에서 논할 수 있다. 임경업이 심양으로 잡혀가면서 그의 첩 매환에게 楊州의 許道의 집에 피신해 있으라고 했다. 덕분에 매환은 숨어서 목숨을 건졌으며, 임경업은 명나라로 망명했다.

뒷날 효종이 북벌에 뜻을 두어 자나깨나 훌륭한 장수를 얻기를 열망하면서 임경업의 억울한 죽음을 슬퍼하였다. 그러다가 그의 첩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궁중으로 불러 임경업의 일을 상세히 물었다. 효종이 매환에게 어떻게 하면 임경업 같은 사람을 얻어 장수로 삼을 수 있겠는지 물었더니 매환은 '전하는 절대 북벌을 실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한다. 효종이 웃으며 그 이유를 묻자 매환은 임금이 강화도로 피난을 갔을 때 金慶徵이 일을 그르칠 것을 알면서도 그를 참수하지 못하고 그에게 방비를 맡긴 것을 나무라며 "이(김경징을 참수하는 일)는 손바닥 뒤집듯 쉬운 일이었는데 전하께서는 하지 못하셨거늘 하물며 북벌이겠습니까. 신은 비록 여자지만 전하께서 하지 못하실 줄을 압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효종은 오랫동안 묵묵히 있었다고 한다.[36]

여기서 주목할 만한 표현은 매환의 말 가운데 "臣雖女子, 知殿下不能也."라고 한 부분이다. '신은 비록 여자지만'이라고 한 것은 좌무제 어머니가 "吾婦人, 受國恩, 不能草間求活."이라고 한 부분의 말투와 비슷하다. 본래 여자는 국정에 관여할 수 없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의리가 있는 임금의 신하도 아니다. 서씨의 그러한 '충절'이 허용되었던 것은 그가 좌무제의 어머니였기 때문이고[37] 매환이 임금에게 直諫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임경업의 첩이었기 때문이다. 임경업의 첩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능력이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야기의 주인공이 임경업의 첩이었기 때문에 여성이 임금 앞에서 간언을, 그것도 임금의 처사를 비판하는 말을 하는 서사가 성립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김씨와 서씨 이야기 역시 실화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있을 법

36) 卷3. "林慶業逮赴瀋陽, 與妾梅環, 俱至金郊驛. 夜半仰天嘻曰: '丈夫安能徒死.' 顧梅環曰: '而其往匿楊州許道家.' 道亦慶業一流人也, 見環至, 果匿之以免. 慶業遂亡命入天朝. 孝廟有志北伐, 寤寐良將, 惜慶業之枉死. 聞梅環在, 召之入內, 問慶業事甚悉, 仍嘆曰: '予安得慶業而將之.' 梅環前請曰: '殿下思將慶業, 豈有北伐之意乎. 臣知殿下不能也.' 孝廟笑曰: '汝何以知吾不能也.' 對曰: '丙子之難, 殿下奉宗社入江都, 金慶徵審必僨事, 殿下何不斬之而勒兵拒虜乎. 此直反掌易也, 而殿下未之能也, 況北伐乎. 臣雖女子, 知殿下不能也.' 孝廟爲之默然良久."

37) 실제 사건의 선후 관계를 따지면 좌무제 어머니에게 본래 대절이 있었고 아들보다 먼저 자결한 것이므로 서씨가 좌무제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허용되었다는 설명은 통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서사가 기록으로 남을 수 있었던 까닭을 생각하면 이와 같은 반대 방향의 해석이 타당성을 얻는다. 자결한 이가 좌무제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한 것으로 기술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한 사건이다. 아마도 그 두 부인이 그러한 상황에서 죽음을 맞은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매환의 이야기는 허구일 가능성이 높다. 1642년 11월 6월 임경업은 청으로 압송되던 중 황해도 금천군의 金郊驛에 이르러 탈출하였다. 『청성잡기』에 의하면 임경업이 매환을 떠나보낸 곳이 바로 금교역이다. 그런데 『인조실록』 1642년 11월 10일 기사에서는 "李葳·梅環·禮只 등 세 사람을 잡아 가둘 것을 명하였다. 이위는 임경업의 벗이고 매환은 그의 첩이고 예기는 그의 종이다."라고 하였다. 매환은 임경업과 헤어진 후 피신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조정에 불려갔던 것이다. 그가 임경업 사후까지 살아남아 효종을 만났다는 것 역시 후대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것이다. 매환의 이야기는 "임경업이 효종을 만났다면 뭐라고 말했을까"에 대한 상상의 소산이다. 임경업이 효종을 만날 수는 없기 때문에 대신 그의 첩 매환을 소환하였다. 그러므로 이야기 속 매환의 말은 실은 죽은 임경업을 대신해서 한 말이다.

매환이라는 당돌한 여성의 이야기는 이러한 연유로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김씨와 서씨 이야기도 - 비록 그들이 그때 죽은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 그들과 관련이 있는 남성, 또는 남성 집단의 충절을 부각하기 위해 일정 부분 '각색'되어 '동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들은 이야기 속에서 분명 여성에게 허용된 것 이상의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고, 가문의 남성과 독립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그들보다 앞서서 국가에 대한 충절을 실현하였다. 이들은 남성에게 속하는 공적 영역의 윤리를 능동적으로 수행한 여성들로서 그려지고 있지만, 그 기록의 배경과 『청성잡기』의 기술 방식을 고려할 때 제한적인 함의만을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청성잡기』의 여성 담론 : 婦德의 딜레마

『청성잡기』에는 '婦德의 딜레마'라는 표현으로 지칭할 수 있는 여성 담론이 나타난다. 〈표 1〉의 8번 기사에서 이를 읽어낼 수 있다. 아래는 해당 기사의 전반부이다.

> 판윤 李宜晩이 충주에서 지낼 때 고을의 한 촌가에 딸이 있었는데 나이가 열셋이었다. 그 어미가 호랑이에게 물려가자 딸이 몽둥이를 들고 멀리까지 쫓아가니 호랑이도 기가 질려 어미를 두고 가버려서 드디어 살아서 돌아왔다. 온 고을이 그 烈孝를 칭찬하고 이공 또한 입에 침이 마르도록 기특함을 칭찬했다. 명을 받아 서울에 들어갔을 때 위항인 가운데 이공과 친한 사람이 늙도록 다만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마침 며느리를 구하고 있었다. 이공이 이에 말하기를 "자네는 효부를 얻고 싶은가? 그렇다면 우리 고을에 어떤 집 딸 만한 이가 없네."라고 했다. 위항인은 평소에 이공을 공경하고 신임했던 터라 기꺼이 혼인을 했다. 그런데 시집오고 보니 성질이 아주 사나운 여자였다. 시아비와 남편이 감당하지를 못하여 늘 울면서 이공에게 호소하기를 "공께서 우리 집안을 망쳤습니다."라고 하였다. 이공 또한 그 며느리를 괘씸하게 여기다가 한성 판윤이 되자 체포하여 그 불효한 죄를 낱낱이 헤아려 심하게 매를 쳤다. 효녀가 결국 불효부가 되었으니, 칭찬을 받은 것도 비방을 받은 것도 모두 이공 때문이었다.38)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이의만이 판윤을 맡은 것이 1731년(영조 7)이니 그즈음의 일임을 알 수 있다. 이야기 속 시골 소녀는 호랑이에게 물려간 어머니를 구해왔는데, 그것이 온 고을에 烈孝, 즉 '열렬한 효'로 일컬어졌다. 어린 나이에 호랑이도 질릴 정도의 기세를 가졌다면 비범한 기상을 가진 인물임이 틀림없다. 이 소녀의 행동은 '勇猛'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어머니를 살렸다는 것이 부각되어 '烈孝'라고 일컬어진 것이다. 이의만은 그가 효녀이기에 당연히 효부가 될 것이라 여겨 혼인을 주선했는데, 알고 보니 성질이 사나워 시집에서 감당할 수 없는 여자였다고 했다. 물론 이 여인은 시아비나 남편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면 역시 어릴 때처럼 용맹을 발휘했을 것이다. 그러나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전혀 효부가 아니었고, 결국 그 때문에 벌을 받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성대중이 이 일에 대하여 그저 우스운 사건으로 치부하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여성의 성품과 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개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는 위 기사의 후반부이다.

---

38) 卷4. "李判尹宜晩, 家居忠州, 州有村家女, 年十三. 其母被攫於虎, 女持杖逐及之遠, 虎亦氣憊, 置母去, 遂得活. 一鄕稱其烈孝, 李公亦嘖嘖稱奇. 及承召入都, 委巷人習於李公者, 老惟一子, 方求婦. 李公乃曰: '君欲得孝婦耶. 無如吾鄕某家女.' 委巷人素敬信李公, 樂與之婚. 及歸, 乃大悍女也. 舅姑及夫不能堪, 常泣訴於李公曰: '公亡我家.' 李公亦切痛其婦, 及掌京兆, 逮數其不孝而痛杖之. 孝女乃爲不孝婦, 而成毁並在李公矣."

> 대저 부인의 도는 順을 정도로 삼으니, 평범하지 않은 일은 곧 상서롭지 못한 것이다. 효에 맹렬한 것 또한 여자에게 적당한 것이 아니니, 지나치게 맹렬하면 반드시 사나움이 되지 말란 법이 없다. 영평의 채씨 여자가 시집가기 전에 어머니가 밤에 호랑이에게 물려갔는데, 채씨가 홀로 떨쳐 일어나 호랑이를 쫓아가서 끝내 어머니를 구해서 돌아왔다. 이 일이 알려져 정려되었는데, 시집을 가고 보니 별로 칭할 만한 부덕이 없고 다만 성질이 남다를 뿐이었다. 선산의 향낭의 일은 아주 대단하여, 산유화 노래가 여기에서 생겨났다. 그러나 선산 사람들은 향낭은 성품과 행실이 편벽되고 조급하여 결코 아내 노릇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라고 말한다. 장부 가운데 혁혁하게 뛰어난 자도 성격이 맹렬하고 사나운 데 치우친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여자는 어떠하겠는가.39)

성대중은 부인의 도는 '順'이라고 단정한다. '順'이란 유순함, 남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 남을 따르려면 자기주장이 강해서는 안 되며, 성품이 모나거나 특출난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 "못하는 일도 없고 잘하는 일도 없는[無非無儀]" 상태가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맹렬한 효 역시 문제가 있으니, 지나치면 사나움[悍]에 이른다고 하였다. 충주 소녀와 비슷한 사례로 영평의 채씨 여인의 일을 제시했다. 또, 당시 평민 여성으로서 열녀로 이름이 난 선산 향낭에 대한 평판을 언급했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에도 용맹함이 지나친 이들은 성격이 사나운 일이 많은데 하물며 여자는 어떠하겠느냐는 말로 마무리했다. 성대중의 이러한 견해는 그동안 숱한 열녀전들에서 놓치고 있는 지점을 적확히 지적한 것이라고 할 만하다.

사실 이야기 속 충주 여자는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용맹함을 발휘한 것인데, 사람들이 이를 열효라고 칭찬하더니 나중에는 효부가 아니라고 비난하였다. 향낭에 대한 소문 역시 모함일 가능성이 크다. 향낭은 그 남편이 포학하여 쫓아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에 그 일을 지켜보았던 마을 사람들은 여자가 소박맞은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른다. 아마 향낭은 포학한 남편을 '유순하게' 받들지 못하는 성격이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

39) 卷4. "大抵婦人之道, 以順爲正, 非常之事, 乃其不祥. 烈於孝者, 亦非其任也, 過於烈, 則未必不爲悍也. 永平蔡氏女未笄, 而母夜爲虎攫去, 蔡獨挺身逐虎, 卒奪母以廻. 事聞旌閭, 旣嫁則婦德別無可稱, 特性氣異於人爾. 善山香娘事甚烈, 山有花之歌, 所由生也. 然善山人言其性行褊卞, 決不能爲居室婦. 丈夫之赫赫有樹立者, 性氣亦多偏於剛猛, 況女子乎."

고집이 세서 집안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뜻을 고수하다가 결국 울분을 이기지 못해 자살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들이 유순함과는 거리가 먼 여인들이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효녀라고, 또 열녀라고 칭송을 받았지만 사실은 부덕이라는 틀에 갇혀 있기 어려운 여자들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들이 효녀가 되고 열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강한' 성격 때문이었다.

바로 여기에 부덕의 딜레마가 있다. 강한 성품은 특출한 윤리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지만 그들은 常道를 따를 만한 부덕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심도 해볼 만하다. 수많은 열녀전과 효부전에서 전하고 있는 특출한 행위들, 그것을 수행한 기특한 여성들이 과연 일상에서도 현숙한 아내요 효성스러운 며느리였을까? 허벅지살을 베어서 남편에게 먹이는 일은 보통의 유순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일까. 호랑이를 때려잡아 남편이나 시아비를 구한 여성은 아마도 충주 여자나 채씨와 비슷한 성격일 것이다. 어떻게 보면 위험에 처한 가족을 향한 지극한 마음과 책임감을 가진 이 여성들은 주위의 비난을 받는 '드센 여자'였을지 모른다. 그런가 하면 친정 부모의 간곡한 마음을 외면하고 어린 자식들을 두고서 자결하는 여인들은 그 성품이 모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열녀전 속에서 이 여성들은 모두 평소에 늘 시부모와 남편의 뜻을 유순하게 받들고 집안의 며느리이자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유순하고 자애로운 덕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묘사된다. '사나운 여자'에 대한 성대중의 견해는 기록 너머의 실상에 대해 당대인들이 이미 어렴풋이 의심하고 있던 지점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부덕은 순종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 저자의 확고한 생각이다. 성대중은 오윤상의 처 김씨의 지조를 칭송한 글에서도 "부인은 남에게 복종하는 자인데 이와 같이 할 수 있었으니 훌륭하지 않은가.[婦人伏於人者, 而乃能如此, 不亦賢哉.]"라고 하였다. 김씨의 경우 남편을 옳은 길로 이끌었기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잘한 일이 되었다. 또, 남편을 거슬렀다 해도 기질의 사나움[悍]으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난받을 부분은 없다. 이러한 김씨를 칭송하면서도 저자는 여자가 복종하는 존재라는 전제를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여성들이 유순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다음 기사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역시 흥미로운 견해를 담고 있다.

> 우리나라는 개가를 금하기 때문에 부인들의 기세가 더욱 높아졌다.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걸핏하면 죽으려 든다. 남편에게 화가 나면 번번이 죽겠다고 하니, 신하가 임금의 은총을 잃으면 벼슬을 떠나겠다고 하고 노비가 주인에게 벌을 받으면 도망치려고 하는 것과 같다. 떠나는 것과 도망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인데 하물며 죽는 것은 어떠하겠는가. 그러나 죽겠다고 하는 것 외에는 실로 다른 방책이 없으니, 그 마음이 어찌 사나워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미 죽을 마음을 먹었다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는가. 말뿐이라고 해도 무섭다. 그러므로 집안을 다스리는 기술은 부인이 죽을 생각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니, 그런 뒤에야 집안을 보전할 수 있게 된다.[40]

여자들이 걸핏하면 죽으려 든다는 것인데,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간다. 남편에게 이래라저래라 지시할 수도 없고, 도저히 못 참겠어도 집을 나가거나 헤어지자고 할 수도 없다. 첩실이 있을 테니 남편을 냉대하는 것으로도 화를 표현하기 어렵다. 결국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것 외엔 수단이 없는 것이다. 완전히 데면데면한 사이가 아니라면, 부인이 죽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기란 힘들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성대중은 개가를 금하여 부인들의 기세가 더 높아진 것으로 진단하였다. 죽는다는 말을 자꾸 하니 그 마음도 따라서 사나워진다[狠]고 하였다. 용맹한 여인들의 문제점이 바로 사나움[悍]이었는데, 평범한 규방의 여인들도 성품이 쉽게 사나워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저자는 이렇게 된 것이 여성들이 현실을 타개할 아무런 방책이 없기 때문임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 그렇다고 개가를 허용하자고 주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남성들이 부인을 잘 타일러서 유순함으로 이끄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 집안이 제대로 유지된다고 하였다. 다른 기사에서는 "아내가 있으면 첩을 두지 말고, 자식이 있으면 재취하지 말라."[41]고 한 판서 洪秀輔의 家戒를 소개하기도 했다. 사대부 가문의 축첩은 일상적인 일이었고, 아내가 죽었다면 재취하는 것이 당연

40) 卷4. "我國禁改嫁, 故婦人之勢益張. 由其無他路, 故皆爲敢死之卒. 慍於夫則輒索死, 猶臣之失恩於君則求去, 奴之見罰於主則思逃. 去與逃亦未易也, 況死哉. 然索死之外, 實無他策, 其心安得不絶狠耶. 夫旣以死自辦, 何事不可爲耶. 徒言亦可畏哉. 故御家之術, 無使婦人索死, 然後方可以保其家也."

41) 卷4. "洪判書秀輔家誡云: '有妻勿畜妾, 有子勿改娶.'"

했다. 그러나 첩을 두지 말라고 했고, 후손이 있다면 새 아내를 얻지 말라고 했다. 첩을 두는 것은 집안에 분쟁을 일으키는 씨앗이다. 재취한 부인은 전실 소생들과 갈등을 빚을 수 있다. 여성들의 '사나움'을 다스리는 한 방편인 것이다.

아무 활로가 없는 현실에서 여성들에게 부덕만을 강요하기란 쉽지 않다. 성대중은 개가 하나만을 들었으나, 사회 진출은 고사하고 문학과 예술의 영역조차도 금기시되던 조선의 상황은 같은 동아시아의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훨씬 더 답답한 것이었다. 이런 상황이 오히려 집안 내부에서 여성들의 불만이 높아지게 하고 유일한 활동 영역인 집안에서 목소리를 키우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행동반경을 제한하고 그들의 섹슈얼리티를 철저히 관리한 것은 여성과 남성의 위계를 분명히 하여 가부장적 사회 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평상시의 부덕 수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성대중이 체감한 또 하나의 딜레마이다.

그러나 문제를 알았음에도 성대중은 제도를 바꾸거나 부덕의 개념을 성찰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남편이 행동을 삼가서 집안 여성을 薰陶해야 함을 말했을 뿐이다. 비록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으나, 여성의 일방적인 순종이나 인내를 강요하지 않고 남성 측의 노력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가 있다. 또한 당연한 것으로 전제되었던 여성 윤리의 작동 방식에 현실적인 '모순'이 있음을 파악하고 이를 진지하게 고민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42]

4. 맺음말

『청성잡기』에서 윤리의 수행 주체로서의 여성을 형상화한 방식, 그리고 '부덕의 딜레마'라고 하는 저자의 문제의식은 당대의 여성 담론과 관련하여

42) 그런데 성대중은 다른 기사에서 세속에서는 믿을 수 없는 것이 하늘과 임금과 지아비라고 하는데, 자신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면서, "잘못하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어서 부녀의 직임을 잘 닦는다면 지아비가 어찌 나를 박대하겠는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즉, '反求諸己'라는 원론적인 테두리에서 하늘-인간, 임금-신하, 남편-아내의 관계를 논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이 '당연한 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앞에서 살펴본 부덕에 관한 논의는 실제의 관찰과 전문에서 나온 생생하고 현실적인 고민이다. 윤리의 강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포착한 것이다.

어떤 의의를 지니고 있을까. 여성의 윤리적 행위를 일괄적으로 열에 귀속시키는 대신 그 성격을 따져서 별도의 가치-賢 또는 義-로 규정한 것, 새로운 시대의 윤리-신의와 의리-의 수행자로서의 여성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는 것, 남성과 연계되지 않은 공적 영역의 윤리-지조와 충절-를 능동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여성 형상을 제시한 것은 발전적인 측면이다. 의협과 충절의 형상에서는 특히 젠더화된 도덕의 위계를 넘어서는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그 반대의 측면도 지니고 있다. 신의의 형상을 그리면서도 여성의 감정과 욕망을 배제함으로써 이념에 투철한 '전형적인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 여성의 충절에 대하여 그 자체로 칭양하기보다는 남성 및 남성 집단의 가치를 현양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한편 여성의 '사나운 성질'에 대한 견해는 당대 여성들에게 강요된 부덕의 딜레마를 적실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그 해결책은 원론적인 당부에 그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분명 참신한 사고라고 할 만하다.

본고의 논의는 18세기 후반 남성 지식인의 여성 담론의 한 양상을 보여준다는 의의가 있다. 성대중은 서얼 지식인이므로 일반적인 사대부들과 다른 면모도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미처 논의하지 못했다. 『청성잡기』의 여성 형상 및 여성 인식을 동시기 여러 기록들-열녀전 등 여성 전기, 필기·잡록과 야담의 여성 관련 기사 등-과 비교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 참고문헌

成大中,『靑城雜記』, 한국고전종합DB.
『純祖實錄』,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데이터베이스.
『日省錄』,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김경회,「『청성잡기(靑城雜記)』의 협객(俠客) 형상에 나타난 성대중(成大中)의 서술 의식 연구」,『한국민족문화』72,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9, 113-140면.
김준형,「『청성잡기(靑城雜記)』를 통해 본 거지와 거지 이야기」,『민족문학사연구』40, 민족문학사연구소, 2009, 168-192면.
김진희,「조선조 서사물에 나타난 기생 섹슈얼리티의 함정」,『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1, 335-370면.
박소동,「청성잡기 해제」, 한국고전종합DB, 2006.
손혜리,「『靑城雜記』에 대한 일고찰 -「醒言」을 중심으로-」,『동방한문학』24, 동방한문학회, 2003, 141-171면.
정우봉,「조선 후기 俠妓의 유형과 그 의미」,『고전문학연구』38, 2010, 433-463면.
조혜란,「〈협창기문(俠娼奇聞)〉에 나타난 죽음의 성격」,『한국고전연구』20,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73-107면.

【Abstract】

Female Representation and View on Women in *Ch'ŏngsŏngjapki*

Jang, Jin-Youp*

This paper aims to deliberate on the female representation and view on women as appears in "sŏngŏn" (醒言, Enlightening Words), a chapter in *Ch'ŏngsŏngjapki* (靑城雜記, Various Records by Ch'ŏngsŏng), written by Sŏng Taechung (成大中).

Three types of female characters appear in *Ch'ŏngsŏngjapki*. First is 'chaste women (烈女)'; Among them are the women who committed suicide after their husbands passed early on in the marriage, and Yubun (有分), a female servant who passed while fighting for her chastity, are women who resolutely practiced ethics based on the morality they had internalized a priori. Here, the writer also does not uniformly label all women's ethical acts as chastity; instead, he specifically classifies them into different categories - such as 'wise (賢)' or 'righteous and chaste (義烈)' - depending on the character of the act. Second is righteous and 'chivalrous (義俠) women', such as Ch'wisŏm (翠蟾) and Poktŏk (福德), who supported the men in exile. Portraying these women as righteous and chivalrous - as dutiful beings - gives birth to a new type of female figure, as agents of ethics in a new era. It is also to transgress the gendered hierarchical boundaries of ethics. But at the same time, not describing the characters' emotions and desires closely resembles the narrative strategy often employed in yŏllyŏjŏn (列女傳. biographies of virtuous women), which tends to produce the ideology-driven 'orthodox character'. The third is 'loyal and faithful (忠節) women'; Madame Kim (金氏) and Madame Sŏ (徐氏) are women who actively practiced virtues belonging to a 'public' realm - generally earmarked as masculine - independently, without being linked to a male figure. However, there is still a limitation here, in that their actions are only acknowledged when their actions are of value to men and the groups related to them.

Next discussed is characteristical view on women in *Ch'ŏngsŏngjapki*. Sŏng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Chinese Classics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

Taechung discussed the relationship between a woman's virtue and her character - in other words, 'the dilemma of womanly virtue (婦德)'. He claimed that ardent fidelity and chastity (孝烈) can contradict with the feminine conduct, in which docility (順) is of importance, and that women who performed outstanding acts may have a temper. Sŏng Taechung also stated that Chŏson women's temperament has become worse since remarriage was disallowed; his argument is that women, without any other means, seek death when disgruntled by their husbands. He suggests, as a solution, that husbands be careful in their action to lead women in their families, in order to control such 'temper' of women. While he failed to come up with an active solution, it is significant that Sŏng Taechung stressed the efforts that should be made by men, instead of forcibly demanding one-sided docility or patience from women. Furthermore, it is worth noting that Sŏng Taechung realized and contemplated about the contradictions in the workings of female virtue.

Keywords: *Ch'ŏngsŏngjapki*, Sŏng Taechung, female character, view on women, womanly virtue.

접수일: 2022.06.29. || 심사일: 2022.07.18. || 게재확정일: 2022.08.24.